



국내 최대 게임쇼 '세계적 게임잔치로 탈바꿈'

그간 국내 최대 게임쇼로 위상을 정립해 왔던 '대한민국게임대전(KAMEX)'이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게임 잔치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4일 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제1차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11월 10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일산의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게임전시행사인 '대한민국 게임쇼'(가칭)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한민국게임쇼'는 기존 대한민국게임대전, 한국국제엔터테인먼트산업전시회(KOPA) 등 각종 게임 관련 행사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통합 전시회로 매년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달 25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화려하게 진행된 '2004 대한민국게임대전'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글 신종훈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대한민국게임대전(KAMEX)은 그간 국내 최대 게임쇼로 자리매김해 왔고, 이번 '2004 대한민국게임대전'에도 전세계 45개 기업·기관·단체에서 참여해 10만여명의 관람객들을 즐겁게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KAMEX 2004에는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온 100여명의 해외 바이어도 국산 게임의 수입을 타진하며 활발한 상담을 벌였다.

마지막 행사를 주관한 김정률 한국게임제작협회장(그라비티 회장)은 "KAMEX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게임산업발전과 궤

를 같이한 역사적인 행사였다"며 "다행히 이런 전통이 '대한민국 게임쇼'의 모태가 돼 거듭날 것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RF온라인 대형 조형물로 이목 끌여

이번 KAMEX 2004에서는 국내외 게임업계의 경영자 및 실무자, 바이어, 관계기관 등 게임분야에 종사하는 각계 인사들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친교의 장이 마련된 데다, 국내외 게임개발 및 경영 전문인을 초빙해 학술적 정보 전달과, 실제 업무에서의 노하우를 소개하고, 각 게임 장르에 따른 개발방향 및 홍보전략 등을 제시하는 전문 세미나가 개최됐다.

또 국내외 투자자가 대거 참여하는 투자유치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국내 게임음악의 위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게임음악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임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게임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특히 올 하반기 상용서비스를 제공했거나, 상용서비스를 앞둔 대작 게임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이번 KAMEX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볼거리와 흥미를 자아냈다는 평가다.

지난 10월말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CCR의 'RF온라인'은 단일 게임으로 1,000만달러의 수출 금자탑을 달성하며, 이번 게임대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세 종족간의 반목과 대립을 근간으로





하는 RF온라인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CCR은 이번 게임대전에서 독특한 기법을 선택했는데, 대형 전시회장만을 선호하는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종족별로 각각 독립된 전시장을 구성하는 파격을 선보인 것.

CCR의 부스였던 벨라토, 코라, 아크레시아 부스는 위치한 장소마저 달리해 각 종족의 특징을 최대한 돋보일 수 있도록 꾸며져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CCR은 또 각 종족을 대표하는 벨라토의 기갑장비, 코라 소환수인 소드에니머스, 그리고 메카닉 캐릭터인 아크레시아의 3미터 이상 대형 조형물을 특별 제작해 사방이 트인 세 개의 부스 중앙을 장식했다.

RF온라인 세 개의 부스는 특별 제작된 대형 조형물과 더불어

게임의 특징을 살린 영상물도 함께 상영돼 게임 전시회만이 줄 수 있는 볼거리와 재미를 동시에 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CCR 윤석호 대표는 “성공적인 상용화 서비스에 이르게 한 유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전시회 부스 하나라도 다른 게임과 다른 파격을 만들어 재미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국내 유저들에게엔 축제의 기쁨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게임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오픈베타 서비스와 함께 세계 게이머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 역시 이번 게임 대전에서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형부스에 다양한 캐릭터들을 선보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는 오픈베타서비스 한달도 지나